FX Market Daily

2026-11-04

전일동향

美 국채금리 상승세에...1,345.10원에 마감

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43.80원(15:30 기준) 대비 2.20원 상승한 1,346.00원(07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탄탄한 고용 시장과 기술주 회복에 맞물린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달러화 오름세를 부추기며, 1,345.10원에 종가(07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9.3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46.45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46.00	1346.80	1337.50	1345.10	1341.20
엔화	851.54	852.81	845.92	846.45	-
유로화	1504.68	1506.80	1495.83	1503.57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88	-3.08	-6.92	-15.56
결제환율(수입)	-0.42	-1.82	-4.8	-12.05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美 중간선거 관망세에...1,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41.00, 15:30 기준) 대비 3.95원 상승한 1,344.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중간선거 관망세 속 상승 전망한다.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상·하원이 과반을 확보하는 블루웨이브 기대가 만연한 가운데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었다. 또한 미국의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, 강달러 흐름이 형성되었다.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역내 달러 실수요도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금일 환율은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미-이란 간 갈등 속에서도 외교적 해결 기대감이 유지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은 강달러 흐름을 일부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8.00 ~ 1350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5100.3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95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1786.72, -197.26p(-0.3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99.6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330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